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강미경^{1*}, 김인경²

¹영동대학교 간호학과, ²한서대학교 간호학과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i-Kyung Kang^{1*}, In-Kyung Kim²

¹Department of Nursing, Youngd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대학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음주동기와 생활스트레스가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충북 Y군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의 추출하였다. 대상자는 259명으로 연구목적을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특성,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SPSS/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동기($t=8.904, p<.001$), 주거형태($t=3.624, p<.001$), 흡연여부($t=2.065, p=.040$)로 구성되었으며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여대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59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The data was collected for 1 months from Oct. 28 to Nov. 28, 2013 in a university-located Y cit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s of the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and the IBMSPSS/WIN 19.0 program. The predicting factors for problem drinking behavior were drinking motivation, type of residency and smoking. The variables explained the problem drinking behavior by 35.7%. A survey of the various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will be required and a drinking reduction program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s needed.

Key Words : Behavior, Drinking, Motivation, University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술은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달 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기호식품이다.

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속력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대학생의 음주는 친교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애크티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학 생활로 유발되어지며[1] 대학 전에 억압받았던 환경과는 달리 선생님과 부모님의 체제가 없는 자유분방한 대학분위기가 이 같은

*Corresponding Author : In-Kyung Kim (Hanseo Univ.)

Tel: +82-41-660-1589 email: dorothea@hanseo.ac.kr

Received May 19, 2014

Revised June 17, 2014

Accepted August 7, 2014

음주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는 선, 후배나 친구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문제음주는 신체적 건강과 폭력, 성문제등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

조사결과 우리나라 대학생 50%이상은 폭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3]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 73.5%, 여자 42.9%이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대학생이 포함 된 20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9.2%로 여성전체 평균 6.0%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대학생 음주실태로 문제음주행위 점수인 AUDIT-K 점수 비율이 남학생 8.2%, 여학생 28.3%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3배 높았으며 여대생 4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술에 의존하는 문제 음주 군이었다[4,5]. 이 같은 결과가 보여주듯 음주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대학생의 문제이며, 특히 여성 음주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겠다. 여성의 음주 문제는 남성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여성의 음주는 남성에 비해 같은 양에도 더 빨리 취하게 되며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학업 유지, 생활관리 문제를 포함한 폭력, 성문제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크게 노출 될 수 있어[6] 여성 음주문제는 향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여학생의 음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음주동기, 흡연경험, 긍정적 음주기대, 부정적 음주기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등이었다[6,7]. 변수들 중 스트레스는 음주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연구마다 상관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측정 또한 대학생 실정에 맞는 도구를 사용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대생들은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중요시 여기고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본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문제음주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 같은 동기는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음주동기와 스트레스를 밝힌 연구는 드물며 특히 문제음주행위와 음주동기, 스트레스의 세 가지 변수 관계를 동시에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들 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여대생의 음주율 및 문제음

주행위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이 갖는 신체적 차이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연구는 부족하며 대상자 또한 남녀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문제음주자만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인의 음주 문제 정도를 지각하지 못하는 일반 여대생들의 문제 또한 심각하므로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음주 실태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여대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 프로그램의 기초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간의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생활스트레스, 음주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충북 Y군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IRB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는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기평가기입방식으로 설문하였다. 대상자 수는 통계방법에 근거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1-\beta=.95$, 효과크기 .15로 222명을 산출하였으며 10%정도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66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미흡한 응답 및 무응답의 7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259명이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 13문항과 음주동기 16문항, 생활스트레스 50문항, 문제음주행위 10문항으로 총 8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특성은 총 13문항으로 나이, 학년, 전공, 종교, 동거인 종류, 거주형태, 이성 친구 여부, 동아리 가입여부, 전공만족도, 전공 성적, 흡연 여부, 운동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폐쇄형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 음주동기

음주 동기는 Wief[9]가 개발한 여대생 음주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 척도 총 16문항으로 해소 4문항, 친교 3문항, 위로 4문항, 도피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이다.

3)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 Kim과 Lee[10]가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문항은 총 50개로 8개의 하위 척도 친구관계 5문항, 이성관계 6문항, 가족관계 6문항, 교수관계 6문항, 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장래문제 8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였다.

4) 문제음주행위

문제음주행위는 음주량에 대한 문제음주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1989년 WHO에 의해 개발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AUDIT를 한국형으로 변환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AUDIT-K[11]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문항은 총 10개 항목으로 4개의 하위 척도 알콜소비, 음주행동, 부정적 영향 및 음주연관 문제 등을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259부의 자료는 IBMSPSS/WIN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에 대해서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1(±1.6)세이며 1학년 23명(8.9%), 2학년 83명(32%), 3학년 89명(34.4%), 4학년 64명(24.7%)으로 전체 대상자는 259명이었다. 학과는 보건계열 68.3%, 교육계열 22.8%, 뷰티계열 8.9%였으며 종교는 종교없음 46.3%, 기독교 35.5%, 불교 10.4%, 천주교 7.7%였다. 동거인은 친구 62.2%, 혼자 20.5%, 부모님 17.4% 순이었으며 거주형태는 하숙 및 자취 47.9%, 기숙사 35.5%, 본가 16.6% 순이었다. 이성친구는 '없음'이 51.0%였으며 동아리 활동을 '안함'이 78.4%였다. 전공에

만족한다 54.1%가 응답하였으며 성적은 3.5-3.0점 45.6%, 3.5점 이상이 39.8%, 3.0점 이하가 14.7%였다. 흡연은 안 하는 학생이 96.1%였으며 운동도 안하는 학생이 65.3%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47.9%, ‘건강하다.’ 41.7%, ‘건강하지 않다.’ 10.4%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Problem Drinking Behavior	
			M±SD	t or F <i>p</i>	M±SD	t or F <i>p</i>	M±SD	t or F <i>p</i>
Age (years)	22.1±1.6							
Grade	Freshman	23(8.9)	35.17±8.87	9.081	21.43±13.51	9.304	5.43±4.65	2.593
	Sophomore	83(32.0)	34.14±10.69	<.001	31.30±15.22	<.001	8.48±6.57	.053
	Junior	89(34.4)	38.94±15.35	a,b<d	35.29±20.96	a<c,d	8.93±6.57	
	Senior	64(24.7)	44.69±11.57		27.16±14.58		9.69±6.36	
Major	Public health	177(68.3)	38.03±12.85	13.371	33.14±18.16	5.301	8.57±6.15	.367
	Education	59(22.8)	35.05±11.52	<.001	26.15±16.22	.006	8.14±6.59	.257
	Beauty care	23(8.9)	50.78±12.49	a,b<c	24.43±12.15	a>c	10.70±1.48	
Religion	None	120(46.3)	43.08±13.49	11.319	31.77±18.36	.622	10.02±6.88	5.001
	Christianity	92(35.5)	33.11±11.62	<.001	29.89±16.56	.601	6.68±5.27	.002
	Buddhism	27(10.4)	37.90±11.36	a>b	26.75±18.82		8.70±6.71	a>b
	Catholic	20(7.7)	37.04±10.57		32.33±16.82		9.41±6.43	
Roommate	Friends	161(62.2)	38.75±13.45	0.921	31.52±18.10	0.396	8.38±6.04	0.447
	Parents	45(17.4)	36.16±12.52	.399	29.91±15.92	.673	8.95±6.57	.640
	None	53(20.5)	39.62±12.66		29.25±17.51		9.28±7.48	
Type of residency	Boarding house	124(47.9)	42.63±13.10	14.892	30.69±16.77	0.006	10.91±6.45	25.146
	Dormitory	92(35.5)	33.29±11.59	<.001	30.76±19.39	.994	5.22±4.57	<.001
	Parent's house	43(16.6)	37.64±12.46	a>b	31.02±16.11		9.60±6.75	a>b
Having a Boyfriend	Yes	127(49.0)	39.25±13.33	0.914	30.50±17.29	0.280	9.39±6.84	0.052
	No	132(51.0)	37.76±12.96	.361	31.04±7.91	.805	7.96±5.96	.075
Having a Club	Yes	56(21.6)	36.39±14.72	-1.351	32.86±18.89	0.600	8.75±6.42	0.903
	No	203(78.4)	39.07±12.64	.178	30.20±17.21	.317	8.64±6.45	.91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40(54.1)	36.58±12.85	2.175	28.76±16.77	0.462	8.09±6.06	1.320
	Unsatisfaction	119(45.9)	40.12±13.21	.031	32.48±18.13	.006	9.15±6.714	.189
Major GPA (Point)	≥3.5	103(39.8)	36.27±12.81	2.521	26.73±15.30	12.206	7.33±4.91	5.993
	3.5-3.0	118(45.6)	39.77±13.07	.082	30.52±16.44	<.001	8.92±6.54	.003
	≤3.0	38(14.7)	40.55±13.69		42.53±21.82	a<c	11.42±8.58	
Having smoke	Yes	10(3.9)	31.30±15.89	3.202	34.60±15.53	-0.702	13.60±7.47	-2.501
	No	249(96.1)	37.97±12.78	.002	30.62±17.67	.484	8.46±6.32	.013
Having Exercise	Yes	90(34.7)	35.80±12.38	2.429	27.46±15.17	2.233	7.78±5.65	1.623
	No	169(65.3)	39.93±13.34	.016	32.54±18.54	.026	9.14±6.79	.106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08(41.7)	37.50±13.46	0.603	30.94±17.99	0.339	8.79±6.84	0.065
	Moderate	124(47.9)	39.40±12.72	.548	30.10±15.89	.713	8.63±5.97	.937
	Unhealthy	27(10.4)	38.26±13.89		33.15±23.10		8.30±6.99	

3.2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평균 점수는 음주동기 38.47(±13.14)점, 생활스트레스 30.77(±17.58)점, 문제음주행위 8.66(±6.43)점이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음주동기는 학년(F=9.081, p<.001), 학과(F=13.371, p<.001), 종교(F=11.319, p<.001), 거주형태(F=14.892, p<.001), 흡연여부(t=3.202, p=.002), 운동여부(t=2.429, p=.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정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 2학년 보다 학과에서는 뷰티계열이 보건, 교육계열 보다, 종교에서는 종교 없음이 기독교 보다 음주동기 점수가 높았다. 생활스트레스는 학년(F=9.304, p<.001), 학과(F=5.301, p=.006), 학과성적(F=12.206, p<.001), 운동여부(t=2.233, p=.0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정 결과 학년에서 3,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학과에서는 보건계열이 뷰티계열에 비해 전공 성적에서는 3.0점 이하가 3.5점에 비해 생활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문제음주행위는 종교(F=5.001, p=.002), 거주형태(F=25.146, p<.001), 성적(F=5.993, p=.003), 흡연여부(t=-2.501,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정 결과 종교에서는 종교없음 기독교 보다, 하숙 및 자취가 기숙사 거주자 보다 문제음주행위 점수가 높았다.

[Table 2] Level of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Variables	N=259		
	M±SD	Min	Max
Drinking Motivation	38.47±13.14	16	80
Daily Stress	30.77±17.58	0	108
Problem Drinking Behavior	8.66±6.43	0	30

3.4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의 상관관계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음주동기와 생활스트레스(r=0.127, p=.042), 음주동기와 문제음주행위(r=0.561, p<.0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생활스트레스와 문제음주행위(r=0.071, p=.255)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Behavior

	N=259		
	Drinking Motivation	Daily Stress	Problem Drinking Behavior
Drinking Motivation	1		
Daily Stress	0.127 (.042)	1	
Problem Drinking Behavior	0.561 (<.001)	0.071 (.255)	1

3.5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가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가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주동기, 종교, 주거형태, 성적, 흡연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인자(VIF)는 1.000-1.04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문제음주행위의 최종 회귀모형은 음주동기(t=8.904, p<.001), 주거형태(t=3.624, p<.001), 흡연여부(t=2.065, p=.040)로 구성 되었으며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Variables	N=259				
	R ²	Adjusted R ²	β	t	p
Drinking Motivation			.493	8.904	<.001
Type of residency			.106	3.624	<.001
Having smoke			.187	2.065	.040
	.370	.357	F=29.466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충청북도 Y군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와 각 변수간의 관계 및 문제음주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1세였다. 대상자는 보건계열이 많았고 종교는 대부분이 없었다. 전공만족 정도도 5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Rhu와 Baek[6]의 여대생의 음주습관을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전공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30.9%였고 불만족한 경우가 20.1%로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교는 종교 없음이 42%, 기독교 39.6%로 본 연구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음주동기 점수는 38.47(±13.1)점이었다. 음주동기의 하위항목은 해소, 친교, 위로, 도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Lee와 Chung[2]의 여대생의 음주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음주를 하는 동기로 술은 부담스럽지만 술자리 참석이 친구간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술을 우울할 기분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의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 하위분류 내용과도 일치하며 연구 대상자들도 음주동기 점수가 80점 만점에 38.74의 점수를 보임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높은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량이나 빈도를 높이므로[12] 향후 건전한 대학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 동기를 감소시켜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 항목에 따른 음주동기 점수는 4학년이 1학년, 2학년에 비해 보건계열은 뷰티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기독교보다 높았으며 주거형태는 자취나 하숙이 기숙사에 비해 흡연여부는 흡연하는 학생이 안하는 학생에 비해 운동여부는 운동 안하는 학생이 하는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들은 일일 평균 8시간 이상의 수업과 과제, 잦은 시험, 학기 중 외부 실습, 국가고시 대비 공부 등의 4년 동안의 정해진 스케줄로 인하여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13,14].

또한 기독교인은 종교의 특성상 음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음주 동기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해진 시

간에 입실해야 하는 기숙사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음주동기가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운동을 하는 학생은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으므로 음주동기 또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흡연과 음주는 의존관계에 있는 변수였으며[15] 그 밖의 변수로는 음주가족력과 문제음주가 있었다[16].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점수는 30.77(±17.58)점이었다. 실제 생활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높지 않은 편이나 일반적 특성 항목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점수를 보면 학년, 전공, 성적에 따라 생활스트레스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ong과 Kang[17]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여대생들은 '장래에 대한 걱정'과 '가치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전공에 불만족하는 대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생보다, 성적 하위권인 학생이 상위권인 학생보다 스트레스점수가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신체적 증상으로서 불면이나 두통, 소화불량 등도 다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처럼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Moon[19]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음주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학업스트레스만이 음주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추후 학업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관련 교육을 통해서 성적이 진로 결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부담은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대생들이 자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아야 될 결과는 문제음주행위 점수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문제음주행위 점수는 8.66(±6.43)점이었다. 이 같은 점수는 AUDIT-K의 카테고리 분류했을 때 위험 음주군에 속한다. 보통 정상 음주군이 0-5점임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음주행위 점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Rhu와 Baek[6]의 연구에서도 조사결과 여대생 중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학생은 30%였으며 5잔 이상은 48%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대생 91.4%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였고 대상자의 40.6%가 AUDIT 8점 이상인 위험 음주군으로 나타나 [20]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선행조찰을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여대생의 음주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본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지방에 있는 일개 대학 캠퍼스로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다. 개인별 응답으로 학생들은 이 같은 이유로 외부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상으로도 농촌지역으로 노인 세대가 많아 대학생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학교 주변에는 많은 술집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방과 후 잉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음주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실정은 지방에 위치한 타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대학에서는 학내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캠퍼스 주변의 유해 환경정리에 앞장서 여대생들을 위한 음주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이 같은 결과 수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음주가 위험한 이유는 여성은 남성보다 체성분 구성상 쉽게 취할 수 있고 음주로 인한 각 기관의 손상 정도도 높을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일 경우 불임이나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1].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교내 교육을 통해 여대생들의 이 같은 위험수준의 문제음주행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음주행위에서는 자취 및 하숙을 하는 학생이 다른 군의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취군이 타군에 비해 음주 빈도가 잦고 음주량이 많으며 고위험 음주경험 및 그로 인한 문제의 빈도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였다[22]. 그 밖의 문제음주행위는 종교, 흡연, 성적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Wie[9]의 여대생의 음주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흡연과 성적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과계열과 학과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최중회귀모형은 음주동기, 주거형태, 흡연여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35.7%의 설명력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흡연경험, 긍정적 음주기대, 문제해결중심 대처가 문제음주행위의 요인으로서 30.4%의 설명력을 보였고[6] 그 밖에 요인으로는 음주빈도, 경제상태, 새로운 경험 추구 성격이 있었다[23]. 질병관리본부 자료 분석 결과 성

인여성의 경우는 연령, 결혼, 학력, 직업, 흡연여부가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4].

생활스트레스에 경우 본 연구에서도 생활스트레스는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며 선행연구를 보면 스트레스는 문제음주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나 대처, 즉 스트레스에 대한 순조로운 적응대처가 음주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Rhee[25]의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여대생을 비문제 음주자와 문제음주자로 분류하여 음주동기를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은 사고 동기 및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며 모든 동기에서 문제 음주자가 비문제음주자에 비해 높은 동기수준을 보였다[26].

그 밖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연구에서는 흡연여부가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27]. 흡연은 술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대학은 보건교육을 통해 이 같은 음주태도를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28].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나 음주행위를 교정하기 위하여 음주문제의 정확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필요할 것이다[29]. 실제 성인음주여성에게 1개월 간 금주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금주에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30]. 향후 여대생들에게도 이 같은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확인한 음주동기 및 일반적 특성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음주동기, 생활스트레스, 문제음주행위 정도와 각 변수간의 관계 및 문제음주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여대생을 위한 음주예방 및 절주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여대생 중 문제음주행위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어 음주에 대한 교내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음주동기 및 흡연여부, 주거형태가 있었고 향후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조사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대생, 그 중 문제음주 여대생을 위한 절주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발 시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 특히 유의하게 나타난 일반적 특성과 음주동기를 고려하여 위험음주자 여대생 스스로 문제음주행동의 수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A. C. Carter, K. O. Brandon, M. S. Gordman, The college and noncollege experience: A review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drinking behavior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Drugs*. Vol.71, No.5, pp.742-750, 2010
- [2] S. H. Lee, S. E. Chung, Drinking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omens Health*. Vol.12, No.1, pp.1-19, 2011
- [3] K. H. Suh, S. A. Yang, The role of alcohol use as coping method with tress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Vol.18, No.1, pp.331-352, 2011
- [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terne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2013[cited 2013 Dec 24], Available From: https://knhanes.cdc.go.kr/knhane_s/index.do (accessed Dec., 31, 2013)
- [5] 2012 Survey on college drinking [Internet]. Seoul: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2013[cited 2013 Jun 20], Available From: (accessed Dec., 31, 2013)
- [6] H. S. Rhu, M. J. Baek, M. J. Factors Influencing the drinking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3, No.3, pp.307-315, 2012
- [7] H. E. Kim, K. Park, E. H. Jung, J. Y. Han,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dysfunctional metacognition on problematic drink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 Paper presented at: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conference, Vol.1, pp.340-341. 2009
- [8] S. W. Shim, J. W. Lee, Y. K. Sohn, An approach on drinking reduction campaign strategic establishment of Korean Women's College Student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11, No.1, pp.204-247, 2010
- [9] S. U. Wie, A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about the drinking motives and problematic drink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10] J. S. Kim, M. K. Oh, B. K. Park, M. K. Lee, G. J. Kim, Screening criteria of alcoholism by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Vol.20, No.1, pp.1152-1159, 1999
- [11] K. K. Chon, K. H. Kim,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pp.316-335, 2000
- [12] D. S. Hong, N. M. Yang, The mediating of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in the relation of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32 No.4, pp.931-948, 2013
- [13] Y. S. Song,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71-80,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71>
- [14] J. K. Kim,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47-59,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47>
- [15] J. A. Oliver, M. D. Blank, K. J. Van Rensburg, D. A. MacQueen, T. H. Brandon, D. J. Drobos, Nicotine interactions with low-dose alcohol: pharmacological influences on smoking and drinking motiv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No.122, No.4, pp.1154-1165. 2013
DOI: <http://dx.doi.org/10.1037/a0034538>
- [16] K. S. Suh, S. J. Chung, S. M. Kim,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fir alcohol use of problematic drinkers among the female college students, *Womens Health*, Vol.6, No.1, pp.33-52, 2005
- [17] M. R. Kong, Y. J.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stresses on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Focus on the college of Pyongtaek C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 No.1, pp.1-22, 2013
- [18] J. W. Kim, M. H. Hong, Y. S. Kim, Impact of stress on physical and temporomansibular joint symptoms in health relates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0, pp.4919-4926, 2013
- [19] J. W. Mo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on interpersonal relatio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40, No.1, pp.65-79, 2014
- [20] H. S. Park, M. H. Cho, G. Y. Cho, D. H. Kim,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110-119,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110>

- [21] E. Y. Do, Y. R. Hong, Factors affecting pregnant women's drinking,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3, pp.284-307, 2011
- [22] B. I. Lee, Y. M. Kim, Y. J. Kim, E. O. Seo, D. G. Lee, S. H. Lee, S. M. Lee, K. M. Han, Y. J. Han, The relationship of health behaviors and residence typ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ety School Health. Vol.25, No.1, pp.77-84, 2012
- [23] H. K. Kim, E. S. Choi, J. S. Ahn,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ing behavior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Vol.10, No.2, pp.205-216, 2004
- [24] E. S. Kim, H. S. Jung,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high risk drinking of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11, No.1, pp.45-56, 2010
- [25] J. H. Rhee, A study on antecedents of employee's drinking behavior and its relationship wi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28, No.3, pp.1-25, 2013
- [26] K. H. Suh, S. J. Chung, S. M. Kim,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for alcohol use of problematic drinkers among the female college students, Womens Health. Vol.6, No.1, pp.33-52, 2005
- [27] K. H. Suh, Characteristics of alcohol use, problematic drinking, and intention of quitting drink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concurrent use of alcohol and cigarette.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Vol.20, No.6, pp.243-264, 2013
- [28] Y. Toh, E. Oki, K. Ohgaki, Y. Sakamoto, S. Ito, A. Egashira, Alcohol drinking, cigarette smoking, and the development of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esophagus: molecular mechanisms of carcinogen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15, No.2, pp.135-144, 2012
DOI: <http://dx.doi.org/10.1007/s10147-010-0057-6>
- [29] J. Y. Ha, Drinking problems,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Vol.22, No.2, pp.1-22, 2010
- [30] E. J. Bong, C. S. Lee, Effects of women focused relaps prevention program on abstinence self efficacy and depression in alcoholic women, Journal of Academy Psychiatrics Mental Health, Vol.20, No.1, pp. 13-24, 2011

강 미 경(Mi-Kyung Kang)

[정회원]



- 2010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졸업 (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2년 9월 ~ 현재 : 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정신건강, 음주문제

김 인 경(In-Kyung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성인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건강, 건강기능식품, 간호대학생